

學問 내부의 反人間主義 극복

金 東 一
(梨花女大 社會學科)

학문 내부의 脫人間주의 경향은 학문 밖 세계에서 과학과 기술, 거대한 조직과 제도, 물질제일주의 사상과 연결되면서 인간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소외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제일주의와 반인간주의의 극복은 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문 세계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성찰의 기회를 가져 볼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근자에 우리는 일반사회에서나 학계에서 인간성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이러한 말은 우리 사회나 학문의 세계에서 '참된 인간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거나 또는 인간으로서의 正體性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人間性이 인간의 인간다운 점, 즉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인간 본연의 자세, 인간의 권위와 존엄성,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의식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人間性의 喪失이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가짜세계 (inauthentic world), 소외된 세계, 무규범 또는 무가치의 세계, 비인간화된 세계라고 규정하는 것

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사실 인간성 회복의 문제는 지금의 학문세계에서나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뿌리는 상당히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맑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구사해서 문명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본질적인 자아의 상실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했다는 논쟁은 제쳐놓더라도¹⁾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해방, 계몽주의 시대의 인간성 발전, 프랑스혁명 이념이었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인간상 추구, 19세기부터 인간의 참된 위치를 정립해 보자는 사회과학의 태동 등은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또는 박탈당한 인간성을 다시 찾고 인간 자신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회

1) Karl Marx,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trans. and ed. by M. Milliga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2), p.108.

복해 보자는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인간 해방을 꾀하고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켜 보자던 노력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진보를 가져 왔는지 몰라도 인간성 회복이라는 비물질적 차원의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해방을 추구하던 과학이 한편으로는 인간을 기계문명과 거대한 관료조직의 예속물로 전락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제일주의가 인간생활을 지배하는 반인간주의적 문화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인간의 권위와 주체성의 상실은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한때 인간이 과학과 기술에 기대했던 인간행복의 증진과 인간성의 회복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한낱 백일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성인들은 깨닫기 시작했으며, 과학과 기술은 오히려 인간을 끝없는 가치와 규범의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20세기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에 대한 지표로는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과 이로 인한 인명의 대량살상은 제쳐놓더라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만 해도 1백 50 차례의 전쟁이 발발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바로 과학과 기술을 토대로 한 물질제일주의와 배급주의 사상의 팽배가 현대세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현대인의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²⁾

물질제일주의는 곧 反人間主義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 반인간주의 사상은 국제적으로는 극도의 국가적 이기주의를 낳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듯한 이기주의와 불신과 황금만능주의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敎育政策의 향방도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경시풍조와 함께 과학제일주의와 산업기술교육의 신성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추세가 서구문명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학문세계에서의 인간성 상실과 좌절을 재촉하고 있지 않나 싶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문의 세계와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제일주의와 物神主義의 늪에 빠져 인간성 상실의 문제와 교육의 정체성 위기

문제로 그동안 끝없는 회의와 방황을 거듭해 왔다. 현재의 반인간주의적인 입시제도와 이와 맞물려 있는 병든 초·중·고등교육 과정과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예 식상해서 제쳐놓더라도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경시와 전공위주의 기능주의적 교육경향, 이와 맞물려 있는 학문세계 내부에서의 반인간주의 사상 확산 등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와 불안을 가증시키는 데에 일조해 왔다. 교육의 장에서조차 휴머니즘이 사라져 버리고 학문세계가 과학과 기술을 전위대로 내세운 채 물질적 이기주의와 출세주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때 우리들의 미래는 암담한 것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들의 학문세계는 반인간주의에 오염될 대로 오염된 채 인간성 상실의 늪에서 헤매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거니와, 이제 아래에서는 과학이 인간주의와 결별하고 기술제일주의가 휴머니즘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 과정과 이에 대한 인간주의의 도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科學과 휴머니즘의 葛藤

원래 과학주의 또는 과학 그 자체는 인간이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나 자신의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인간으로서의 권위와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이념 또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이 인간주의 또는 휴머니즘 사상과 배치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필경은 과학과 기술 앞에서 인간은 왜소하고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휴머니스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문명, 그리고 이것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과학주의와 기술적 합리주의 사상이 인간을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로 이끌고 가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한때 편견과 미신의 우상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꾀해야 한다던 베이컨의 과학주의 정신은 끝내 인간을 과학과 기술의 노예로 전락하게

2) J.K. Galbraith, *The Age of Uncertainty*(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7).

만들어 인간성 회복이 아닌 인간성 포기의 상황으로 몰고갔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과학과 인간주의, 즉 휴머니즘의 결별을 확인하게 된다.

원래 철학과 문예 분야에서 시작된 서양의 휴머니즘 운동은 14세기 후반기의 이탈리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의 기초가 되는 이념과 사상은 중세 기독교의 교권에 대한 불신과 환멸,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의 인간해방에의 욕구를 담고 있었다.³⁾

이러한 인간중심주의 사상의 발달은 서구사회에 개인주의 사상의 확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을 불사하는 행동철학을 낳아 급기야는 서구사회의 전통적 기반을 완전히 뒤엎은 프랑스의 민주시민혁명으로까지 발전한다.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이데올로기적 특성은 바로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의 기반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개개인의 권위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세력파도 대결하는 인간행동의 적극성과 능동성과 창조성을 강조한다.⁴⁾

한편,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근대과학의 발달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⁵⁾ 그리스의 고전에 대한 휴머니스트들의 관심은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히포크라테스 등의 고전 물리학자나 의사들이 발견해 낸 수학적 원리 또는 그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가져왔고, 그 결과는 레오나르도,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등의 자연과학의 선구자들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연이 수학적으로 기록된 현상이므로 자연의 이해를 위해서는 수학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책'(the book of nature)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험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실제로 많은 실험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 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의 선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휴머니스트이자 예술가였다. 또한 그 당시 예술가들은 工人, 즉 기술과 경험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 이것들을 예술작품의 창작에 활용했다. 이들은 예술가이자 공인이었고, 과학자이자 휴머니스트이었다. 에컨대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한편으로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학의 확실성을 숭상했고 또 끝없는 실험들을 계속했다. 그는 예술가요, 과학자요 또 수학자이기도 했다. 이것은 휴머니즘이 과학의 발달에 어떻게 공헌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예이다.

휴머니즘과 과학의 발달이 함께 시작했던 것은 물론 초기에 그들이 같은 이데올로기를 나누었다는 데에도 연유한다. 즉,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휴머니즘과 과학이 중세 기독교의 횡포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사명을 같이 하고 있었다. 또한 휴머니즘과 과학의 동시적 발달은 생태학적으로 도시의 발달과 병행했고, 이것은 곧 근대 자본주의의 출현과도 연결된다.⁶⁾

그런데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온 근대국가의 출현은 도시 중심으로 활약하던 휴머니스트들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켰고, 그와는 반대로 과학은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필요한 知識은 휴머니즘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科學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과학의 발달에 따른 기술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드디어 산업혁명을 가져왔다. 그 후 바야흐로 세계는 휴머니즘의 세계가 아닌 과학과 기술의 세계로 급격하게 전환했다. 세계는 정신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로 전향하기 시작했고,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내재적인 선함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화였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과 근대의 중앙집권적 국가의 출현,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가속적인 도시화와 산업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3) 務滋理作, 『현대의 휴머니즘』, 풀빛 편집부 역 (풀빛, 1982), p. 21.

4) Robert A. Nisbet, *The Sociological Tradition* (New York: Basic Books, 1966).

5) Don Martindale, *The Nature and Types of Sociological Theory* (Boston: Mifflin Co., 1981), p. 37.

6) 위 책, pp. 37~46.

사회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점점 분화되어 갔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분화가 심화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사회통합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조직의 거대화, 즉 官僚化이며 관료조직의 발달은 점점 거대해지면서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을 넘어서 인간을 보다 철저히 통제하는 인간의 기계화와 획일화, 즉 인간의 非人間化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과학과 휴머니즘의 결별은 과학 그 자체의 속성이나 그것이 제공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에 휴머니스트들이 반발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과학의 발달과 그것에 수반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휴머니스트들의 반항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휴머니스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사회에 끼친 影響은 최소한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량적이고 외형적인 것의 추구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인간의 보다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선에 대한 추구나 심미적·예술적 미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인간관계는 수단과 수단의 관계로 변질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막스 베버가 지적한 수단적 합리화의 과정인데, 인간이 추구하는 합리성, 즉 경제와 효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다른 인간이나 조직의 수단으로 전락해 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이것은 휴머니스트적 입장에서의 규범적 평가이다. 인간관계가 과학적으로 계산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세계는 불신의 세계, 가짜세계, 소외의 세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휴머니스트들의 과학문명에 대한 비판은 과학화에 따른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의 소

외 등 인간생활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이데올로기적 평가이다. 즉,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지배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통제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인간의 자유, 권위, 존엄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 오웬의 『1984』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과학과 기술의 고도의 발달이 인간을 무력한 소시민, 심지어는 정치적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예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권력과 부를 가진 엘리트는 일반대중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소유하게 된다. 지배자들이 정보와 기술을 독점하게 되면 일반대중을 조작·통제하는 것이 그만큼 쉬워지고 철저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다.

바로 여기에 과학적 지식 또는 과학적 방법의 價値中立性의 년센스가 있다. 설령 과학자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더구나 이른바 과학자가 가치중립이라는 약속된 원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메도하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진다.⁷⁾

과학적 방법의 가치중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 과학적 지식이 불편부당 객관적일 수 있느냐 하는 보다 복잡한 인식론적 문제는 우선 제쳐놓더라도 과학적 지식의 한계성이나 편파성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그것을 동원해서 인간행위의 통제를 시도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휴머니스트들의 비판은 이른바 요즘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과학과 휴머니즘의 관계를 사회과학과 휴머니즘의 관계로 보다 축소해서 살펴보기로 하자.⁸⁾

7) C. Wright Mills, *Sociological Imagination* (Fair Lawn, N.J.: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8) Flody W. Matson, *The Broken Image: Man, Science and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6).

3. 社會科學에서의 反人間主義

근대 사회과학의 출현은 갈릴레오와 뉴턴에 의해 확립된 과학적 방법론과 이론이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현상의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유래한다. 갈릴레오와 뉴턴에 의해 정립된 과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우주는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은 것이며, 이러한 우주현상의 분석과 설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을 토대로 한 실험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科學的 世界觀에 의하면 거대한 기계로서의 우주의 속성은 그것의 객관성과 인과관계성의 원리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자연현상이 인과관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곧 이 현상이 그것에 선행하는 그 어떤 원인의 결과임을 의미하고, 이 말은 곧 결과는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적 결정론은 모든 현상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것은 곧 '객관적'이라는 견해와 일치한다.⁹⁾

이와 같은 과학주의 사상의 발달이 인간중심주의 사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모든 현상이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인간은 오직 이러한 객관적인 현상에 존재하는 인과법칙을 객관적으로 발견함으로써만이 진리를 캐낼 수 있는 길이라는 과학주의 사상은 인간과 자연, 즉 인식의 주체와 그것의 대상(객체)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간극은 현상(appearance)과 실체(reality)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멀다. 결과적으로 근대과학은 인간을 이 우주의 중심부에서 쫓아내버린 것이다. 이제 인간은 우주의 한 모서리에서 자연법칙만을 발견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무력한 주체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은 인간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스트들의 正體意識에 상처를 남

긴 것이다.

더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연현상의 연구에 적용되는 이론과 방법이 인간행위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이 세계의 주체이어야 할 인간이 과학적 조사의 객체로 변질되고 따라서 인간행위는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연구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행위에 대한 이같은 과학적 분석 대상으로서의 파악은 곧 인간의 자연화 또는 기계화를 의미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동물로서의 한 유기체의 물질과 동작에 환원된다는 홉스의 견해와도 일치하며 이같은 홉스의 기계주의적 철학은 볼테르, 로크, 스피노자 등을 거쳐 오늘날의 논리적 실증주의와 심리학에 있어서의 행동주의 이론에 연결된다.¹⁰⁾

이제 우리는 인간의 객체화·자연화·기계화가 휴머니즘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인간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의 自然科學 方法論의 適用은 인간의 주체의식과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에 내포된 이같은 반인간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콩트나 스펜서가 주장한 대로 인간사회의 진보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주적 또는 객관적 법칙에 의해 좌우된다는 진화론적 결정론이나 맑스의 유물론적 역사주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무산계급의 비참한 운명에 그토록 깊은 인간애를 보였던 맑스의 휴머니즘은 그가 주장하던 자신의 이론의 '과학성' 때문에 필경은 공산주의의 독재체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이 내포하고 있는 반인간주의적 사상은 이른바 가치중립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보다 적나라하게 표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즉, 휴머니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價値中立性이란 윤리적 허무주의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으며, 이같은 윤리적 중립성은 인간복지에 대한

9) 위 책.

10) 위 책.

과학자들의 무관심 내지 책임회피를 정당화하는 것 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판을 낳기도 한다.

4. 科學主義에 대한

人間中心主義의 反擊

뉴턴의 기계주의적 세계관이 3백년 동안 이 세계를 주도해 오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발과 도전이 비단 휴머니즘과 종교계 쪽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뉴턴의 우주관은 과학자들 자신에 의해 크게 도전받기 시작했으며, 특히 1927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는 뉴턴의 물리학에 치명타를 가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플랑크의 ‘양자이론’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보어의 ‘상호보완성의 원리’, 그리고 베르텔랑피와 같은 생물학자에 의한 유기체 이론의 정립 등은 뉴턴의 기계주의적 모델의 쇠퇴를 가져오기 시작했고¹¹⁾, 이것은 곧 인간행위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 주게 되었다. 즉, 自然科學者들 자신에 의해 인간이 機械的 結定論에서 解放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국의 유기체 발생학의 대가였던 코힐에 의하면, 그의 실험결과에 따라 인간의 행동은 자신에 의해 창조적으로 이뤄지며 따라서 인간행위를 외부의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나 그것의 결과로 보는 결정론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힐의 동료였던 헤릭은 인간의 인지나 의식은 물리·화학적인 요소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로지 인간 자신에 의해 내재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서서 心理學에서도 인간행위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에 관한 결정론에 대한 도전은 認知心理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인간의 인지과정은 불가항력적인 자극이나 외부

의 힘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극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인지한다는 것이다.

또 메슬로우의 경우도 자신의 인간주의 심리학은 객관적 행동주의 심리학과 정동적 프로이드 심리학에 대비해서 혁명적인 제3의 심리학이라고 주장하면서¹²⁾ 인간의 자기조절적이고 자기통제적이며 자기선택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통제와 강제의 중요성보다는 자발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의 존재를 역설한다.¹³⁾

한편, 정신분석학에서도 인간중심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 과학주의와 낭만주의의 경계선에서 방황하던 프로이드를 잇는 융이나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기계주의적·객관적 접근에 반대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인간 대 인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를 치유하려는 휴머니스트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사회학에 있어서의 과학주의·실증주의적 접근에 대한 인간주의의 반발은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19세기의 철학자요, 역사학자이기도 했던 딜타이는 인간에 대한 실증주의적 연구에 반대하면서 과학을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으로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文化科學에서는 인간행위의 이해를 위해 안으로부터 자료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말 딜타이보다 실증주의적 사회학에 더 강한 비판을 가한 사람은 톨스토이였다. 그는 사회학자들이 걸으로는 과학적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모두 가치 판단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위 실형적·실증적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학자들은 인간착취에 대한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말할 것 없이 톨스토이의 사회학에 대한 이같은 평가에 니체도 동조하고 있었다.¹⁴⁾

한편, 사회학계의 내부에서도 실증주의에 대한 휴머니스트적 비판이 19세기 말부터 진행되었

11) 위 책.

12) 김경동, “인간주의 사회학의 성격과 문제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 방법론』(민음사, 1977).

13) 조대경, “인본주의 심리학”, 위 책.

14) Martindale, 앞 책.

는데, 예컨대 토니슨나 뒤르켐의 사회학에서 실증주의에 대비한 인간주의적 관심이 비치기 시작하다가 이러한 경향은 막스 베버의 이해의 사회학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그런가 하면 맑스 이론의 과학주의화에 환멸을 느낀 일단의 독일 지식인들은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를 창립하면서 맑스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맑시즘이 가지고 있는 인간해방에 대한 관심에만 집착하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실증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한 현대 사회학이 정확한 측정에 의한 정밀성이라는 아이디어로 참되고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을 대치시켜 버린 반인간주의 학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자연과학의 모델을 빌어다 쓰는 사회학은 검증가능한 지식을 윤리로부터 격리시키고 가치중립성을 주장함으로써 권력층의 지배와 조작에 필요한 수단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증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1960년대의 급진주의 사회학의 밑지나 성찰적 사회학(reflexive sociology)의 입장과 상통하고 사회학에서의 이같은 인간주의적 관심은 현상학적 사회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1970년대는 이같은 人間主義 社會學이 사회학계 내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굳히는 시기이기도 했다.

5. 맺는 말

원래 원인(cause)이란 용어는 그리스 시대에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 원인이란 말은 인간 자신에게 내제한다고 믿었던 자아(self)라는 개념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초기 그리스인들은 인간행위를 자기들 마음 속에 내제하는 자유롭고 목적지향적인 자아의 작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나중에 능동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자아를 자연에 투사함으로써 객체(자연)가 주체로 변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세계의 擬人化 현상이 발생했다.¹⁵⁾

그 후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과학의 발달과 함께 자연의 세계를 우주적 자연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게 되고 기계의 동작은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거한다고 믿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자연주의 사상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인간행위를 기계주의적 인과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확대되면서 이번에는 주체(인간)가 객체로 변하게 되고 인간의 機械化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인간행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신념은 곧 인간행위를 조작·통제할 수 있다는 결정론으로 발전해 인간은 내재적인 힘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종속하는 과학적 변수로 취급받게 되었고, 이것은 필경 인간의 주체성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 이같은 현상은 다양한 학문의 세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자연과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사회과학 영역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인간을 외부의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조건화된 객체로 가정하고 인간의 의식이나 자율성을 과학의 범주에서 배버린 채 인과관계의 원리에 의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경향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대로이다. 그런가 하면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의 기능주의자나 구조주의자들이 사회를 거대한 기계 또는 유기체로 보고 구성원은 문화나 사회구조가 정해 주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맑스주의자들이 인간의 의식은 물질적 토대 또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반영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운명은 필연적인 역사의 프로그램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인간의 능동성과 자율성과 창조성을 간과하는 것은 현대 사회과학이 내포하고 있는 반인간주의적 특성을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정론적인 전망에 근거하는 이론이나 학문은 인간의 천성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일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즉, 인간의 본성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인간을 원래 사악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비협조적인 본성을 타고나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은 사회구조에 의해 또는 정치조직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시

15) Matson, 앞 책.

각을 받게 된다.¹⁶⁾ 이러한 人間像에 대한 가정이 결정론(어떠한 형태이든)과 영합할 때 인간 주체성의 상실은 극치에 도달하게 된다.

학문 내부의 이같은 脫인간주의 경향이 오늘날 학문 밖의 세계에서 과학과 기술, 거대한 조직과 제도, 그리고 물질제일주의 사상과 연결되면서 인간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필경 인간을 소외된 존재로 전락하게 하는 데에 공헌해 왔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다.

우리 사회에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배금주

의 사상과 반인간주의의 극복이 왜 필요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학문세계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는 이제 명백해졌다. 물론 인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학문세계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날로 확산되어 가는 물질제일주의와 반인간주의의 극복을 위해 한번 더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16) Ashley Montagu, *The Humanization of Man* (New York: Grove Press, 1962).